

우리에게 잠시나마 일상생활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던,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울고 웃을 수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도 마침내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가 수영의 박태환과 역도의 장미란, 그리고 야구의 이승엽 등에게 열광하는 동안 중국 속의 또 다른 세계들인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유흥총들이 계속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올림픽에 앞서 티베트에서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400여명의 시위 군중이 중국 공안당국의 무차별 발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발미가 되어 올림픽 보이콧 내지는 개최지 변경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영국의 찰스 황태자나 미국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유명 인사들은 개막식 참석을 거부하거나 예술 감독직을 사양하기도 했다.

올림픽은 말 그대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겨야 할 스포츠 축제마당이다. 그러나 잔치집의 뒷마당에서 피 흘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축복받은 잔치가 아닐 것이다.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의 중국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한다면 중국인들이 그로써 영원히 올림픽을 너무 폄하하는 태도일까?

비록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그루지야 영토를 침공한 것도 올림픽의 평화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국제적 사건임이 분명하다.

어디 비단 그곳뿐이겠는가?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총성은



불자 세상보기

허 남 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올림픽에 가린 '티베트 인권'

여전히 멧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알제리, 이집트 등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폭탄이 터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우울한 뉴스가 들린다. 적어도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지구촌에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이징 올림픽을 무난하게 치른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강대국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뚜렷하게 심어줬다. 폐회식에 참석한 국가원수만 120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한 번

에 보여주고도 남는다. 어디 그 뿐인가. '100년의 꿈'이었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자부심은 국가 내부의 단결심을 한층 더 제고시켜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올림픽이 가져다 준 경제적 부가가치는 처치하고라도 중국 당국이 얻은 과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뒤집어쓰게 된 인권탄압국이라는 불명예는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수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하드 파워, 즉 군사력만 있다고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힘은 인권 및 자유와 같은 사회문화적 자산, 즉 소프트 파워에서 나온다. 오늘날 인류의 지성과 도덕성은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능가하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세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세계의 중심, 곧 '중화(中華)'임을 자처하려면 인간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각종 조치들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중국은 이제 커다란 덩치에 걸맞은 여유와 포용력을 보여줄 때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이 무너진 강대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임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만약 중국이 이런 대륙적 자신감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막는 것과 같은 옹졸한 처사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중국은 거대한 땅 어마리에 어울리는 도덕적 사고와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세계는 지금 소프트 파워 지향의 세련된 중국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의 최강대국 반열에 오른 중국의 인권의식은 세계평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社說

법불교도대회와 청와대의 태도

8월 27일 서울 도심은 불자들이 가득했다. 이미 예고된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법불교도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법불교도 대회에서 조계종을 비롯한 27개 종단은 일심 단합하여 20만 불자를 운집해 전국불교도의 '마음'을 천하에 드러냈다.

법불교도대회를 계기로 헌정부 들어 잇달아 터져나온 공직 사회의 종교편향 행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이 나라에서 타종교에 대한 오만과 불손이야말로 명백한 헌법 질서 파괴라는 경각심도 불러 일으켰다. 법불교도대회의 외침이 불자들만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교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언짢았던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틀림이 없다. 법불교도대회는 우리 사회에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미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도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서와 상관없이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곳이 한 곳 있다. 법불교도 대회를 본 청와대는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불교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사과에 대해서는 법불교도 대회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관련 발언'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감표명 발표 정도에서 뒤를 잊지 않았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세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법불교도대회 이후 뒤에는 대통령과 막역한 친분을 과시해 온 한 목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물론 그 목사가 개인자격으로 초청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력이 다수 포함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대표자들이란 점에서 대통령은 초청한 만찬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비난을 면기 어렵다.

법불교도대회를 전후한 청와대의 태도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감지된다. 지금 청와대는 법불교도대회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몹시 궁금하다. 각종 성명서에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련의 사안들이 법불교도대회를 개최한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8·27 법불교도대회가 새 정부 들어 이어진 공직사회의 종교편향 사례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대한 무례한 불심검문을 기화로 기화되고 개최된 것은 맞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불교도대회의 뿌리가 상당히 깊고 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서울시 봉헌 발언'과 '전국 사찰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자'던 부산의 기독교 청년단체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 격려한 사건, 김영삼 정권에서의 청와대 불상 이전 사례를 비롯, 청와대와 고위 공직 사회의 종교편향 사례들이 그 뿌리다. 나아가 타인의 사생활과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집요하고 공격적인 선교로 일관해 오며 사회에 적지 않은 불편과 염증을 길러 온 기독교계의 무책임과 각종 훼방 사건, 불교편향 발언 등도 깊고 굵은 뿌리가 아닐 수 없다. 법불교도대회를 바라보며 장경종 목사가 "스님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발언했다니, 청와대 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8월 27일 불자들이 서울광장에 모인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말 그렇다면 법불교도 대회는 앞으로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정씨가 항상 지갑 안에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 있다. 살기 힘든 요즘, 직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조용히 꺼내보곤 한다. 동료들이 "무슨 애인 사진이에요?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면서 꺼내보다니" 했다. 정씨는 "맞아요. 제 애인입니다"하며 웃었다. 바로 유난히 정씨가 좋아하는 한 불상의 사진이다.

얼마 전 정씨는 <좋은 글> 중에서 사람의 시 한편을 보고, 그 내용이 부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인 것 같으면서 시 전문을 보내왔다. (괄호는 정씨가 덧붙임)

“당신 안에서 삶을 꿈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㉞ 내 애인은 나의 참마음

〈싫증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당신(부처님)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아주 특별한 설렘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단지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하나(선법가) 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듯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잠시 당신의 목소리(법문 테이프)만으로도 내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일상 동안 함께 얼굴을 부비며 살아도(일생 절에 다녀오)

싫증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난 언제나 당신 속에서 삶을 꿈꿉니다. 당신 안에서 삶을 꿈꾸는 것(성불하려는 것이) 이제는 자아의 상실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나의 꿈이 본래부터 당신과 같은 길에 놓여져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난 이토록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귀한 인연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지도 생각했습니다. (전생부터 공부한 것 같아요)

내가 이토록이나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미 당신 안에 내가 들어가(중생이 곧 부처) 나는 내 자신을 그리워하듯 당신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속 깊은 구석구석까지에도 그렇게 내 안에도 당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호흡하고 당신과 대화를 합니다. (항상 관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라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책자 안내**
- 1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2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3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4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5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6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7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8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식서 조성의의.
 - 9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발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달마사
- 법 명 : 임수월하 보살(임 분상)
- 주 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 791번지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